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과 『동아시아사』 교육

남영주*
0pearl@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3. 전쟁기억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교육 |
| 2. 전쟁기억의 재현 | 4. 맺음말 |

主題語: 동아시아사(East Asian History),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NAGASAKI Peace Museum), 강제동원(Compulsory Mobilization), 기억(Memory), 기록(Record), 보상(Compensation)

1. 머리말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전으로 인해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일본 정부는 수켄(數研) 출판이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정정신청을 낸 것에 대해 승인했다.¹⁾ 이러한 교과서 왜곡 문제는 현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의 하나로서 韓日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악영향만 줄 뿐이다.

위와 같이 갈등구조 속에서 韓日 관계가 지속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더욱 키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힘의 구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가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뿐이며,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009240752902>(검색일:2015.01.10)

했던 개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자의 모습이 요구될 뿐이다. 즉 국가 간의 대결구도로 韓日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역사 문제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韓中日이 공동으로 집필한 『미래를 여는 역사』를 간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7차 개정교육과정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다.²⁾ 이 과목은 기존의 역사교과서 서술 방식이었던 각국사 나열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지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각국사가 아닌 ‘지역세계사’라는 과목의 성격에서 볼 때 『동아시아사』중 근대사 단원은 상호 관련 속에서 역사가 전개되었으므로 韓中日의 최근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문제를 해결하여 이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과목의 목표에서 볼 때도 동아시아 갈등의 배경이 된 근대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근대사 단원에는 韓中日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가해자 일본’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일본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³⁾ 또한 일본 내의 반전론을 제시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⁴⁾ 이러한 교과서 서술방식은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된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 국민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한 나머지 일본은 가해자이고 동아시아 다른 지역은 피해자라는 인식의 『한국사』서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일본이 종군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사건 등 침략전쟁 중 일어난 일련의 가해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근대를 ‘동아시아 각 국 간의 갈등해소와 평화추구’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의 전쟁 피해 사실을 아시아 국가들이 입은 전쟁 피해와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교과서 저술 목표의 ‘당위성’과 한국에서 유통되는 『동아시아사』의 서술 주제는 누구여야 하겠는가의 ‘주체성’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정된 분량으로 완성된 교과서 내용 서술의 ‘합목적성’ 등 『동아시아사』를 둘러싼 논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⁵⁾ 바람직한 『동아시아

2)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10학년 과학과 역사 과목의 시수를 주당 한 시간 늘렸고,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으로써 과목의 시수 보장하였다.(7학년에서 10학년까지) 또한 일반선택교과와 심화선택교과를 통합하고, 다양한 선택교과(매체언어, 동아시아사 등)를 신설하였다.

3) 황상진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비상교육, p.196

4) 황상진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비상교육, pp.197-198

5) 조영현(2013)『『동아시아사』교과서의 ‘은 유통망과 교역망’-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동북아역사 총』39,

사』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침략전쟁을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피해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해당사건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있는 자료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침략전쟁시기(1931~45)의 기억을 재현해 놓은 대표적 자료관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廣島平和記念資料館)⁶⁾과 국가히로시마원폭사망자추도평화기념관(國立廣島原爆死沒者追悼平和祈念館)⁷⁾과 나가사키원폭자료관(長崎原爆資料館)⁸⁾이다. 이들 자료관은 ‘원폭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일본이 피해국가라는 점과 원폭이 투하되기까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원폭의 참상만을 강조하고 있다.⁹⁾ 오키나와전(沖繩戰)에 대한 기억은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沖繩縣平和祈念資料館)¹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관은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반전평화자료관이지만, 점차 일본의 전쟁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시내용들이 삭제되어 기존의 설립의도가 많이 퇴색되었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 長崎平和資料館)¹²⁾(이하 평화자료관으로 칭함)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자료관은 일본의 침략전쟁(1930~1945년)시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각 종 전시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일본의 침략 역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현장이다. 이 자료관이 전시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동아시아』 수업

그 외 『동아시아』를 둘러싼 논쟁으로는 과목 신설 과정에 있어서 ‘급진성’,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의 ‘불분명성’ 혹은 ‘가변성’, 유럽 중심주의 혹은 중국 중심주의나 자국사 중심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에 대한 ‘탈중심주의론’ 등이 있다.

6) <http://www.pcf.city.hiroshima.jp/>(검색일:2015.02.01)
7) <http://www.hiro-tsuitokenkan.go.jp/index.php>(검색일:2015.02.01)
8)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index.html>(검색일:2015.02.01)
9) 여문환(2008)「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7-149
10)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index.html>(검색일:2015.02.10)
11) 김민환(2006)「일본 군국주의와 탈맥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오키나와전(戰) 기억의 긴장」『민주주의와 인권』vol.6 ; 조성윤(2011)「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35; 호사카 히로시(2004)「오키나와전(沖繩戰)의 기억과 기록」『43과 역사』vol.4, 참조
12) <http://www.d3.dion.ne.jp/~okakinen/index.htm>(검색일:2015.02.10); 千野香織 박소현 역(2002)「전쟁과 식민지의 전시: 뮤지움 속의 일본」『전시의 담론』눈빛; 동북아역사재단 편(2011)『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Ⅱ-關西・九州・오키나와 지역 편』동북아역사재단

에 활용한다면, 『동아시아사』가 내포하고 있는 서술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내용 이해를 돕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보고는 평화자료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쟁 기억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자료관은 국가(지방)에서 설립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자료관과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과 달리 민간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재현하고자 하는 기억과 민간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기억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 그간 주목하지 못했던 이 자료관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동아시아의 화해와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들의 일면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본 기념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역사교육에 활용하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¹³⁾ 또한 자료관 차원에서 자체 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역사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¹⁴⁾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평화자료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료관을 방문해야만 접할 수 있었던 기록물들이 이제는 이용자가 직접 자료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자료관을 방문하기에 거리와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를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국사와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가 검·인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방식과 관점의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여러 출처의 자료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으며, 기념관과 자료관 등을

13) 국가기록원 기술팀 편(2007)『(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을 활용한) 중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국가 기록원; 김희경(2008)「아카이브 활용과 역사교육」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전금순(2007)「공공 전문기록관리기관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ok, Sharon Anne(1997)「Connecting the Archives and the Classroom」Archivaria44; Osborne, Ken(1986)「Archives in Classroom」Archivaria 23

14) 최근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정민(2007)「4.19혁명기록의 현황분석과 통합서비스 방안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김은실(2008)「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문소희(2009)「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준호(2010)「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한 교수법이 제시되고 있다.¹⁵⁾ 국정교과서의 폐지는 기록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기록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역사연구에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전쟁기억의 재현

평화자료관은 일본 내에서 전쟁책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자료관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인데, 우선 자료관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본 자료관은 목사이자 나가사키 의회 의원이며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의 대표를 역임한 오카마사하루(岡正治, 1918~1994)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오카마사하루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기간 중 피해를 받은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인권운동가이다. 그는 일생 동안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였다. 그가 인권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 이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1965년 한일조약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족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81년부터 조선인 피폭자의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원폭과 조선인』(『原爆と朝鮮人』第1集~第6集, 1982~94年) 및 중국인의 강제노동을 고발한 『녹슨 톱니바퀴를 돌리자』(『さびついた歯車を回そう』, 1994년)등을 출간하였다.

오카마사하루가 사망한 후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을 건립하였다. 평화자료관이 건립되는데 있어서 오카 씨와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는 전쟁피해자들의 권리를 복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카 씨가 사망한 후에도 평화자료관은 남경대학살증언집회보고집(『長崎と南京を結ぶ集い報告書』)과 나가사키의 청년들을 우호방중단(友好訪中團)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의 보고집(日中友好・希望の翼報告書) 등을 출간하여 전쟁 피해의 기억을 전승하고 있다.¹⁶⁾ 또

15) 대표적인 예로 삼화출판사(2012)『고등학교 한국사』p.357 (4.민주주의가 발달하다) <자료 목록>에 수록된 자료는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5·18광주 민주화운동자료총서』(2009)이다. 비상교육(2012)『고등학교 한국사』p.315 (2. 8·15광복과 통일정부수립운동) <시선 넓히기 인물>에는 “백범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김구의 업적을 조사해보자.”(<http://www.kimkoomuseum.org>)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6) 박수경·조관연(2013)「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일본어문학』vol.61,

한 평화자료관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나 기업 단체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하고, 평화자료관의 취지에 동의하는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관람객이 기부하는 기금에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다.¹⁷⁾ 1995년 10월 1일 개장한 평화자료관은 설립취지를 아래와 같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희생된 외국인들은 전후 5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아 왔습니다. 가해의 역사가 숨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는 없습니다.(중략) 당 자료관을 방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해의 진실을 앎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후 보상의 실현과 非戰의 다짐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¹⁸⁾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벌어진 어두운 가해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려서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성찰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즉 전쟁피해의 원인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평화자료관의 설립은 나가사키의 사회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전후5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장하면서, 피폭내셔널리즘으로 점철된 원폭자료관으로 탈바꿈하였다.¹⁹⁾ 이에 오카 씨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일본의 사과 및 보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며, 그 결과 히로시마와 달리 나가사키 원폭공원에는 “조선인피폭자추모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²⁰⁾ 국가가 기억하는 사실만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오카 씨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평화자료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²¹⁾

평화자료관은 1~2층이 전시실로 사용되며 전시물은 주제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본 자료

p.515

17)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2010)『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평화자료관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p.30

18)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2010)『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평화자료관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p.2
<http://www.d3.dion.ne.jp/~okakinen/setumei.html>(검색일:2015.02.10)

19)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index.html>(검색일:2015.03.02)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원폭에 의한 피해의 실상과 투하 경위 및 경과 그리고 핵병기 개발의 역사, 핵병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자료관 어느 곳에도 왜 원폭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20) <http://www.d3.dion.ne.jp/~okakinen/oka/oka3.html>(검색일:2015.01.24)

21) 박수경·조관연(2013)「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일본어문학』vol.61, p.514,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이사장, 高實康徳의 답신 메일(2013.3.22) 재인용.

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주제만 선별하여 아래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오카마사하루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상설전시 내용22)

구분	주제	전시내용
1층	朝鮮人被爆者 코너	· 조선인 피폭자 실태 · 조선인 피폭자 증언 전시
	強制連行 코너 <飯場>	· 탄광, 광산, 토목현장에 강제 연행되어 노역한 조선인들의 실태 · 三菱造船所に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이 거주한 마을의 해체 전 사진전시 · 탄광에서 사용된 도구, 잡지 등 · 노동자들의 식사 모형 · 強制連行· 強制勞動의 증언 * 坑口: 탄광 모형 전시
	사진으로 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조선편	· 조선으로의 야망 · 조선병합 · 독립운동탄압 · 민족성말살과 황민화 · 강제연행과 징병
계단	사진으로 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중국편	· 시기: 만철~만주사변 · 전시주제: 「南京」/「重慶」/「万人坑」/「731部隊」/「三光作戰」
	일본은 아시아에서 무엇을 했나?	· ‘대동아 공영권’의 미명 아래 아시아 각국에서 행해진 일본의 만행을 2층 전시장 입구의 벽면 모두를 사용하여 정리
	帝國主義란?	·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 했다는 일본의 침략 정당성에 대한 비판
2층	중국인 강제연행 코너	· 1999년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 실상조사회>를 결성해서 중국인 강제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전시
	皇國化教育 코너	· 내용: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을 인간 만들기 · 일본 내 皇國臣民 형성 과정을 잡지와 사진, 교과서 등을 통해 검증
	日本軍 慰安婦 코너	· 보상코너 · 정대협과 연합하여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전시 ·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가사키 집회 증언 · 만화가 石坂啓가 위안부 문제를 그린 <突撃一番>이 A3로 확대하여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함
	戰後補償 코너	· 일본인들에게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
	岡正治 코너	· 본 자료관의 제안자인 오카 씨의 프로필과 유물 소개

22) <http://www.d3.dion.ne.jp/~okakinen/1kai/tizu.html>(검색일:2015.01.24)

23) 이름, 출신지역, 나이, 사망원인이 기록된 하시마탄광 희생자 122명의 명부와 사키토탄광의 희생자 212명의 명부이다. 화장인허가증이 1986년 발굴되어 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노동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화장인허가증에는 사망원인을 적게 되었는데, 단적으로 일본인에 비하여

2층	岡文庫(書籍閱覽)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카 씨 장서의 일부: 「오카 문고」 운영 · 조선문제, 원폭문제 등 귀중한 서적이 많음 · 이곳에 전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비디오(VHS)를 다수 소유하고 있어서, 전후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유용 · 필요에 따라 대여 내지 상영회를 개최 가능
	南京大虐殺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8월 본 자료관과 남경대학살기념관이 제휴, 이곳에 전시되어있는 사진은 난징 기념관에서 제공함
	日本軍의 잔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일본의 침략에 따라 행해진 학살의 증거 사진
	히노마루 · 기미가요 · 일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각 지역의 황민화 교육
	端島 高島 코너 → 「徐正雨 氏 생애」 코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마 소개: 나가사키 항 부근의 작은 섬. 1890년 미쓰비시의 소유의 석탄공급지. 1974년 폐광 될 때까지 최고급 숯을 생산. 이 작은 섬에 1945년 당시 5300명의 사람들이 거주. 그 중에는 다수의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이 존재. (일본의 패전 전후 하시마 거주 조선인은 500명, 중국인은 200명) · 나가사키시에 거주하는 徐正雨씨가 하시마에 연행된 과거를 증언
사망자 명부 (端島hashima · 崎戸saki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마 사키토 소개: 미쓰비시의 광산 · 조선인 강제 노동 실태 소개 · 하시마 사키토에서 사망한 조선인 명단. 오카 씨가 생전에 입수한 귀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번사, 압사, 자살, 익사 등으로 사망 기재²³⁾ 	

<표-1>과 같이 평화자료관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전시는 1층 2개의 주제 코너와 2층 8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층에는 1개, 2층에는 6개의 주제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1층 전시는 조선인 관련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일본의 조선침략을 1910년부터 시기별 주요사건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특히 조선인 피폭자 문제와 강제연행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飯場>(합바)라는 조선인들의 숙소를 재현하여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물건과 생활상들이 전시되어 있고,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청취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증언이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갱도 모형을 전시하여 당시의 참혹했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2층 전시는 일본의 중국 침략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인 강제 연행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대표적 사건인 남경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 학살사 진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나가사키에서 행해진 강제연행에 관한 내용을 사망자 명부와 함께

조선인의 사망원인이 變死로 제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2012)『軍艦島に耳を澄ませば』p.115, 참조.

전시하고 있는 점은, 이 자료관이 나가사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로컬기억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아래 행한 아시아 침략의 허구를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설립자 오카 씨를 위한 코너로 그의 일대기와 업적에 관한 전시 그리고 오카 씨가 기증한 서적으로 마련된 <오카문고>가 있다. 전후보상 코너는 오카 씨 일생의 노력이 집약된 부분으로 이 자료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이 평화자료관은 1931~1945년 동안 일어난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본 자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기록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전시의 대부분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전쟁피해 실태와 전후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평화자료관이 일본 최초로 전후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평화자료관은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강제 노역된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증언기록은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물로 판단되며, 본 자료관이 로컬 자료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내용의 기록물이 전시되고 있다. 일본의 가해사실에 대한 전시내용, 특히 ‘대동아공영권의 허구’라는 전시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관은 일본인들을 위한 역사교육의場이기도 하다.

평화자료관의 전시 기록물로 볼 때 이 자료관을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전후보상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따라서 <전후보상>과 <端島·高島 코너徐正雨 氏 생애>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인데, 관련 기록물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자료관에서 출간한 연구 성과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전후보상> 코너의 주요내용은 3장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 1은 1992년 나가사키에 강제 연행된 김순길 씨가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무책임론, 미쓰비시중공업은 별회사론(別會社論)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상고 기각된 과정까지를 소개하고 있다. 패널 2는 재외피폭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재판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패널 3은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미쓰비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보상을 요구한 정황을 소개하였다. 개인적 차원의 보상요구는 일본정부가 전쟁책임을 질 것은 물론이요, 전범으로서 미쓰비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端島·高島 코너>는 徐正雨 氏 생애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홈페이지에는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24)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2010)『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 참조; 박수경·조관연(2013)「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일본어문학』vol.61, 참조.

있는 서정우 씨가 하시마에 강제연행되어 미쓰비시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에 대한 증언²⁵⁾과 하시마에서 죽은 조선인 노동자의 유족이 1991년 한국에서 ‘端島韓人遺族會’를 결성하여 미쓰비시를 상대로 ‘유골의 탐사 및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정우 씨의 경우 뿐 아니라, 평화자료관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강제연행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은 파악할 수 있다. 총 8개의 패널(panel)과 4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패널의 내용을 살펴보면 패널 1 <강제연행 관련 연표>에는 1910년 8월 한일합병부터 1945년까지의 강제연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패널 2 <조선인 노무자 유골의 행방>에는 조선인 노동자 유골 반환에 대한 미쓰비시의 불성실한 대처를 기술하였다. 패널 3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방법>에는 ‘미쓰비시석탄광업 하시마탄광’이 1920-40년대 동안 다수의 조선인들을 노역시켰는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징용과 강제연행 등으로 노역자 수가 증가하여 1943년에는 조선인 약 500명, 중국인 204명이 강제로 노역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패널 3은 패널 2에서 언급한 1991년과 1992년에 있었던 미쓰비시의 유골반환거부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유골반환과 사망조선인 노동자의 임금과 위자료 지불 및 사죄를 요구한 사실과 시민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가두서명과 기부활동을 펼친 사실을 기술하였다. 패널 9 <각지의 개요>는『원폭과 조선인』을 근거로 나가사키현에 소재하는 12개소의 市와 町の 강제동원 양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패널 10은 <나가사키현내의 조선인강제연행>이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은 나가사키의 탄광, 병기공장, 조선소, 댐 건설현장으로 보내졌는데, 1945년 8월의 나가사키 시내 조선인 수와 조선인 피폭사망자수를 기술하였다. 또한 미쓰비시 석탄업 사키도(崎戸)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선인 화장기록(212명)을 소개하였다. 하시마의 조선인 노동자 122명의 화장매장인가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유골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기술하였다. 패널 11은 조선인들이 나가사키로 강제 연행된 루트와 귀국 루트를 지도로 제시하였고, 패널 12는 1944년 나가사키현 주요 탄광의 한국인 이입자 수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전후보상 관련 기록물들은 나가사키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하시마 탄광에서 노역한 실태를 중심으로, 피해 조선인들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일본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 기록물은 일본이 조선인에 의한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7월 5일 메이지시대 근대산업시설물의 하나라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시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²⁶⁾

25)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hasima.html> (검색일:2015.03.24)

26) 하시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한·일간

3. 전쟁기억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교육

『동아시아사』는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신설되어 2012년 처음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3종의 교과서가 유통되고 있다.²⁷⁾ 이 과목을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⁸⁾에 의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자세한 설명 없이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내용을 줄이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단편적인 교과서 서술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와 주제사’라는 교과목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본 고에서 고찰하려는 동아시아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1931-1945)동안 입은 전쟁피해 사실 역시 위와 같은 서술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동아시아사』 전체 6개 대단원 중 5단원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에 기술되어 있는데,²⁹⁾ 구체적인 교과서 본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고자 식민지에서 노동력과 병력을 동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징용당하여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여성들도 강제 동원되어 군수 공장의 노동자가 되거나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렸다.

의 갈등으로 인해 등재 결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 대표단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1940년대 지배했던 민족들을 이 곳에서 강제 노역하게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가까스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27) 『동아시아사』는「2007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로 채택된 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교육과정 개정과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명 변경이나 성취기준 조정이 없었다. 이에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가 2011년에 검정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2012년부터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안병우 외(2012)『동아시아사』서울:천재교육와 손승철 외(2012)『동아시아사』서울:교학사) 그런데 『동아시아사』교과서가 검정 중이던 2011년 시점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동아시아 교육 과정의 개정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2012년에 새로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동아시아사』교과서는 3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2014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되고 있다.(안병우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서울:천재교육, 손승철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서울:교학사, 황진상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서울:비상교육, 2014)

28) 金裕利·辛聖坤(2014)「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역사교육』vol.132, p.6

29) 2011년 개정『동아시아사』교육과정에서는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단원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을 “①개항 이후 각국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동을 파악한다. ②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그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보고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을 비교한다. ③군국주의의 대두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적 연대와 평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④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일어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4가지를 제시하였다.

(중략) 일본군은 중·일 전쟁 초기에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 무고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다. 베트남에서는 일본군의 군량미 및 민간의 쌀 수요를 충족하고자 많은 양의 쌀을 수탈해갔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투 행위와 무관한 민간인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군에 의한 학살, 가혹한 노동,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³⁰⁾

위와 같이 『동아시아사』는 중·일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강제동원과 위안부, 난징대학살, 가혹행위 등 일본에 의한 전쟁 피해 사례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위 교과서 서술만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입장도 소개하지 않는다면 이 과목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각 국 간의 갈등해소와 평화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 평화자료관이 보여준 일본인들의 전쟁기억은 이 과목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실상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입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평화자료관의 強制連行 코너 <飯場>이 전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코너는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노동자들의 증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평화자료관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³¹⁾

…… 탄광에서의 차별은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바다의 조류를 먹었다. 전쟁이 끝날 쯤은 특히 심했다. … 조류라는 것은 다시마·미역·김 등의 해초가 아니다. 인간이 먹는 것이 아니지만 돼지도 먹지 않는 것이다. 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탄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였다. … 쉬고 있으며 일본인 현장 감독이 몽둥이로 두들기고 기절하면 물을 뿌리고 또 때린다. … (北松浦郡, 鉄大加勢 炭坑에서 일했던 朝鮮人 男性의 証言)

…… 나는 여기서 여러 번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 탄광 노무계는 거짓 계약으로 조선인을 연행해 와서 힘든 노동을 강제하였다. 하얀 빠지(조선 옷)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완전히 속여 탄광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식사가 주어지지 않아서 배가 고파 매일 울부짖었다. 일 없이 쉬면 즉시 헌병이 격렬한 체벌하였다. … 당시 15세 정도의 나는 그 끔찍한 광경에 놀라움과 공포에 떨었다.

30) 안병우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천재교육, pp.196-197

31) <http://www.d3.dion.ne.jp/~okakinen/1kai/syouden.html>(검색일:2015.03.02)

... 1944년 말 ‘동래’에서 100~200명의 조선인 청년이 연행되어 왔다. 그들을 “東萊隊”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애기가 다르다”, “이런 약속은 없었다.”라고 해서 3일째 탄광에서 탈출했다. ... 불운하게 그들은 잡혔다. 폭력은 정말 잔인하고 무시무시했다. 반장으로 알려져 있던 지도자들 몇몇은 차가운 물을 뿌려 때리거나 두드렸고, 실신하면 또 물을 뿌려 힘껏 두들겨 그것은 반죽음 상태였다.(北松浦郡, 神林炭鉱의 保健係로 일하던 朝鮮人 女性의 証言)

端島·高島 코너의 「徐正雨 氏 생애」도 강제연행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오카 씨는 1983년 서정우 씨로부터 출생에서부터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그리고 원폭피해와 이후 일본에서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채록하였다. 아래 구술은 서정우 씨가 하시마에서 강제 노역한 상황이다.³²⁾

하시마는 높은 콘크리트 절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다뿐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2층과 4층 건물에 넣어졌습니다. 1인 1침에도 못 미치는 좁은 방에 7-8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외관은 모르타르나 철근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쪽은 너털너털했습니다. 우리는 쌀겨 봉투 자루와 같은 옷을 입고 다음날부터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를 찬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이것저것 명령했습니다.(하시마는 감옥섬)

바다 아래가 탄갱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갱도를 내려가 굴착장에 도착하면, 땅에 엎드려서 굴을 팔 수 밖에 없는 좁은 곳이고, 덥고 고통스러운데다 한편으로는 낙반의 위험도 있고, 이대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콩 앙금 80%, 현미 20%의 밥에 정어리를 통째로 구워 으갠 것이 반찬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설사를 해서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쉬면 감독이 와서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구타를 했습니다.(바다 아래 중노동)

위와 같이 평화자료관에서 채록한 서정우 씨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과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에, 일본 내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강제연행자들의 피해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하시마는 일본 식민통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이곳에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인은 당시 경험했던 고통과 좌절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증언자이다. 강제동원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정부나 기업들은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하는 한국정부도 강제동원 실태파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평화자료관이 수집한 자료는 강제연행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32)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2010)『피해자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p.17, 참조

있어서 중요하다.³³⁾

강제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고 미불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³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자료관이 수집한 구술기록은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기록물들이 생산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기록물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⁵⁾

이처럼 평화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증거, 향후 근대 동아시아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가 부인하는 강제동원 등 침략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존재와 노력의 일면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부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평화자료관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후보상 코너의 일부분이었다. 이후 위안부로 생활했던 姜德景, 金順德 두 명의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金信實 씨가 평화자료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대협과 연대하게 되었고, 평화자료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코너로 운영하게 되었다.³⁶⁾ 이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가사키 집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 일본인 수천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가 보도되었다.³⁷⁾ 아사히(朝日)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33) 평화자료관의 기록물은 다양한 자료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박인환(2012)『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선인

34) 2000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상고심 진행 중); 2005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상고심 진행 중); 2012년,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일부승소; 2013년,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2014년,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등이 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6005001>(검색일:2015.01.20)

35) 권미현(2007)「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16;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2005)『당꼬 라고요?』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에서 편찬한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등.

36)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ianfu.html>(2015.02.15)

3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126202306117>(2015.01.26)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8천700여 명이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표면상 아사히 신문이 기사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 논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국들은 평화자료관처럼 일본 내에서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는 단체³⁸⁾ 및 개인과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자료관의 활동은 좋은 사례이다.

평화자료관은 2000년 8월 남경대학살기념관과 제휴를 하였다.³⁹⁾ 평화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은 난징기념관에서 제공해 준 것이다. 평화자료관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는 난징대학살을 날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일본의 중국 침략의 상징인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화자료관은 매년 12월에 남경대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집회를 개최한 후 남경대학살증언집회보고집(『長崎と南京を結ぶ集い報告書』)을 발간하고 있고, 나가사키의 청년들을 부호방중단(友好訪中團)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의 보고집(日中友好・希望の翼報告書)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 간의 갈등을 국가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술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I'm The Evidence>⁴⁰⁾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⁴¹⁾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사이버 역사관>등이 있다. 평화자료관의 활동상은 향후 이러한 관련 기관들의 사업 구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은 공공기억이 포함하지 못하는 기억을 보완하는데 좋은 사례가 된다. 나가사키에서 공공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비롯하여 원폭관련 자료관들은 일본인들의 원폭피해만을 언급하였다. 왜 그 곳에 원폭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에다 고이치로(前田耕一郎)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관장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념관

38) 대표적으로 2005년 8월 1일 개관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단일 주제로 전시하는 유일한 일본 자료관으로 민간의 기금과 모금을 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39) <http://www.d3.dion.ne.jp/~okakinen/2kai/nankin.html>(2015.01.31)

40) <http://www.hermuseum.go.kr/>(2015.02.04)

41) <http://www.nanum.org/>(2015.02.04);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2002)『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찾아서』역사비평사. 세계 최초 일본군 ‘위안부’ 주제의 박물관이다.

의 목표라고 설명한다.⁴²⁾ 한 개의 원자폭탄의 투하하여 수십만의 생명을 순간 앗아갔으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에, 그는 이곳을 방문하여 핵무기공포의 진실과 전쟁의 비극적 어리석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성스러운 중요성을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전후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낸 히로시마는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한다. 히로시마는 ‘왜 그러한 비참한 원자폭탄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철저히 외면한다. 원폭자료관의 설립취지는 전시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전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전시내용⁴³⁾

구분		주제	전시내용 및 전시물
원폭자료관	지하 2층	1945년 8월 9일	· 피폭 전의 나가사키의 도시역사에 대한 설명 · 피폭당시의 회중시계 등 전시
		원폭에 의한 피해실상	· 피폭 망루, 교탑, 우라카미 성당 외벽 등을 대형의 재해 자료를 재현해서 전시 · 나가사키 원폭투하까지의 경과와 피폭한 나가사키의 거리를 사진 및 영상으로 전시 · 실제 원폭 및 나가사키시 지형을 재현해서 전시 · 열선, 폭풍 및 방사선에 의한 피해현황에 대한 설명과 유물, 유품, 사진 등 전시 · 구원, 구호활동 등 유물, 사진을 전시 · 나카이타카시 박사의 원폭장애연구 및 구호활동 행적에 대한 유품 및 자료 등 전시 · 피폭자들의 전쟁, 원폭의 재해, 평화의 고귀함을 증언 비디오와 회화전을 통해 전시
		핵병기가 없는 세계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연대기 · 핵병기의 시대로 핵폭탄의 개발역사, 핵병기로 인한 국제관계의 분쟁, 핵병기 개발 실험의 피해자들의 현황에 대한 설명 및 비디오로 전시 · 핵병기 폐기와 평화에 대한 회구를 설명
		비디오룸 (2개)	· 피폭재해, 반핵, 평화, 원폭실험으로 인한 재해 등
	기획 전시실	피폭실상 및 평화	주로 원폭 자료관 수장 자료전 *수시로 교체되고 있음

42) 김준섭(2000)「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국제정치논총』제40집 4호, pp.165-166

43) <http://www.city.nagasaki.lg.jp/peace/japanese/abm/josetsu/index.html>(2015.03.02)

위 <표-2>와 같이 나가사키 市 피폭 50주년을 기념해서 재개관된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전시내용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의 실상과 투하의 경위 및 경과, 핵병기 개발의 역사, 그리고 핵병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알리며, 세계평화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어디에도 왜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일본인의 원폭피해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⁴⁴⁾ 이처럼 국가가 재현하고 있는 기억과 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기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평화자료관의 기억은 공공기억과는 분명한 선 긋기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사』는 피해국들의 사례와 함께 일본의 피해 사례와 일본 내에서도 평화와 반전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교과서 기술은 아래와 같다.

①일본은 여성과 학생들을 강제로 군수 공장에 보냈고, 징병 연령을 17세~45세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젊은이를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리고 국민 통제를 위해 도나리구미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국방 현금, 금속 수집, 근로 봉사 등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팔굉일우, 기미 가요 등을 통해 천황을 신격화하여 충성을 강요하였다. 전쟁의 막바지에 일본은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던 오키나와의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그곳 주민에게 집단적인 자결을 강요하기도 하였다.⁴⁵⁾

②일본에서는 고토쿠 슈스이가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를 편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제국주의는 단순한 영토 확장 정책이며, 전쟁은 소수의 군인, 정치가, 자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은 전쟁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궁핍해질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非戰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 사회 민주당과의 국제 연대를 제안하고, 일본 내에서 여러 단체와 함께 반전 활동을 전개하였다.⁴⁶⁾

기사 ①은 일본 내에서의 피해 사례이다. 일본 내에서도 민간인들은 전쟁 준비 내지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천황의 신격화와 충성을 맹세했던 민간인들은 식민지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동아시아사』는 일본의 민간인도 황국신민화 교육 및 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된 전쟁의 피해자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 전투에서 집단자결을 요구당한 일본인들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임을 밝히고 있다.⁴⁷⁾ 기사 ②는 침략전쟁기간 중 일본 내에서의 非戰

44) 국립히로시마원폭사망자추도평화기념관(國立廣島原爆死沒悼平和祈念館)과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廣島平和記念資料館)의 전시 내용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과 차이가 없다. 히로시마평화자료관의 전시 내용은 동관http://www.pcf.city.hiroshima.jp/virtual/VirtualMuseum_e/visit_e/vist_est_e.html, 본관 http://www.pcf.city.hiroshima.jp/virtual/VirtualMuseum_e/visit_e/vist_wes_e.html을 참조.

45) 황상진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p.196

46) 황상진 외(2014)『고등학교 동아시아사』pp.197-198

47) 조성윤(2011)「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vol.35, p.80

論과 反戰論 등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기술이다. 『동아시아사』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개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동아시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노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화박물관 전시 코너 중 <일본은 아시아에서 무엇을 했나?>와 <帝國主義란?>과 <皇國化教育 코너>는 일본의 아시아지역 침략상의 허구와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 했다는 침략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皇國化教育 코너>는 일본 내에서 행해진 황국신민화 정책을 교과서와 사진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는 침략 전쟁의 허구성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로 볼 수 있다.

평화자료관은 공공기억이 재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존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평화자료관이 관심을 가졌던 대상인 약자 즉 피해자, 국가보다는 개인, 다수보다는 소수 등은 기존 역사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들이었다. 또한 공적 기록인 아닌 개인이 생산한 기록과 구술기록 등 개인의 노력으로 수집한 기록물은 그간 드러나지 있었던 사실들을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기록과 개인의 노력은 역사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사실을 복원하는데 일조하였다.

평화자료관과 같이 공공의 기억에 대항할 수 있는 기록들은 『동아시아사』서술방식과 같이 일본의 침략 전쟁이 동아시아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일본 내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있었음을 이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을 함께 극복하려는 시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사례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쁨으로써 상호 협력의 전통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동아시아사』교육과정의 가치·판단 영역에도 부합하였다.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는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맺음말

2012년, 19세기 중엽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사』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 과목은 목적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줄 서술내용이 불충분하였다. 특히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자신의 침략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사』 서술상의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쟁기억을 통해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사』 서술내용에 보충 및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필 수 있었고, 공공기억에 대항할 수 있는 기억들의 힘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록물과 개인의 노력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평화자료관은 1995년 재일조선인의 인권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오카마사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원폭투하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가사키는 원폭투하로 인한 일본인과 일본의 피해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언급은 없다. 평화자료관은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들의 피해만을 재현하고 있는 공공기억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평화자료관은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침략한 전시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목할 만 한 점은 나가사키에 강제 노역당한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증언 자료가 조사·수집되었다. 이는 평화자료관이 로컬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자료관으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전시이다. 또한 일본 내 황국신민화의 실태와 대동아공영권의 이론적 허구를 조사한 전시 내용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상을 알리기 위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 보상 문제를 전시한 코너까지 마련하는 등 일본 최초로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기억에 대항하는 자료관으로서 주목할 만했다.

평화자료관은 국가가 기억하지 않는 사실들을 재현하여 그간 역사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들이 역사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카 씨를 비롯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의 노력, 그리고 기록의 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기억들은 『동아시아사』 서술의 문제점을 보충해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사』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강제동원 관련 국내 기록물들과 함께 법적 증거 자료로까지 활용될 여지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화자료관이 남경대학살 기념관과 연대하여 학술 및 인적교류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대협과 연대한 점은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쟁의 기억들은 교과서 문제와 과거 역사인식으로 대표되는 한중일의 갈등을 민간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 구정민(2007) 「4.19혁명기록의 현황분석과 통합서비스 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국가기록원기술팀편(2007)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을 활용한) 중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국가기록원 권미현(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16
- 金裕利·辛聖坤(2014)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교육』vol.132
- 김민환(2006) 「일본 군국주의와 탈맥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오키나와전(戰) 기억의 긴장」 『민주주의와 인권』vol.6
- 김은실(2008)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김준섭(2000)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제40집 4호
- 김희경(2008) 「아카이브 활용과 역사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2002)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2011)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Ⅱ-關西·九州·오키나와지역 편』 동북아역사재단
- 문소희(2009)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조관연(2013)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vol.61
- 박인환(2012)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선인
- 비상교육(2012) 『고등학교 한국사』
- 삼화출판사(2012) 『고등학교 한국사』
- 손승철 외(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황진상 외(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 여문환(2008)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카마사 하루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2010)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전후 보상의 실현과 비전(非戰)의 다짐을』, 평화자료관 발간 소개 책자(한글판)
- 전금순(2007) 「공공 전문기록관리기관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운(2011) 「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35
- 조영현(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 유통망과 교역망'-주체의 설정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39
- 차준호(2010)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호사카 히로시(2004) 「오키나와전(沖繩戰)의 기억과 기록」 『4.3과 역사』vol.4
- 長崎在日朝鮮人の人權を守る會(2012) 『軍艦島に耳を澄ませば』
- 千野香織, 박소현 역(2002) 「전쟁과 식민지의 전시: 뮤지엄 속의 일본」 『전시의 담론』 눈빛

Cook, Sharon Anne(1997)「Connecting the Archives and the Classroom」Archivaria44

Osborne, Ken(1986)「Archives in Classroom」Archivaria 23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록과 『동아시아사』교육

2012년 처음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각 국 간의 갈등해소와 평화추구’라는 목표아래, 하나의 사건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지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목은 목적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줄 서술내용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사』서술상의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쟁기록을 통해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평화자료관이 재현하고 있는 전쟁의 기억은 첫째,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공영권의 허구’라는 전시를 통해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혔다. 둘째, 전시 내용의 대부분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전쟁피해 실태와 전후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강제 노역된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증언기록은 이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징적인 기록물로서 로컬 자료관으로서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평화자료관이 보여준 전쟁기록은 『동아시아사』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첫째,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실상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입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관과 개인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평화자료관의 전쟁기록은 공공기록이 포함하지 못하는 기억을 보완할 수 있었다.

평화자료관이 보여주는 전쟁의 기억들은 국가가 기억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재현하여 그간 역사의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들이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카 씨를 비롯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의 노력, 그리고 기록의 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였다.

The Memories of War in Oka Masaharu Memorial NAGASAKI Peace museum and 『East Asian History』 Education

『East Asian History』 started to be used in the education field since 2012 and it aims to resolve conflicts and pursue peace between countries in East Asia. This subject focused on how an incident affected the whole East Asia in regional context. But it wasn't enough to explain necessity of education goal. So this paper examines historical recognition of Japanese on invasion through war which was reproduced in NAGASAKI Peace Museum and seeks for way to use for 『East Asian History』 to compensate this descriptive defect.

Here is the wartime situation which was reproduced in NAGASAKI Peace Museum. First, it classifies clearly between victim and offender of war by holding exhibition ‘The Fiction of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and attribute war to invasion of Japan. Second, the exhibition mostly shows war damages of Korea and China. Third, it focuses on collecting records of victims of atomic bomb and compulsory mobilization in Nagasaki. Especially, the museum possesses the testimony on Korean and Chinese who was drafted into the military by force so that it can be qualified for local museum.

Therefore, we can attain education goals of 『East Asian History』 by using materials of NAGASAKI Peace museum. First, we understand details of compulsory mobilization by Japan and the stance of Japanese for that. Next, we recognize that solidarity is essential to solve the historical problems in East Asia. Lastly, the materials of museum make up for external records on war situation.

The materials of the museum reproduce on wartime situation help us to reenact reality so that we study facts behind history. All achievements are attributed to Mr. Oka as well as efforts of companions and various records. And, it implicates that Japanese make an effort to inquire into the actual state.